

“삼다수 공장에서 ‘물의 가치’ 직접 배워요”

‘나누GO, 지키GO, 함께하GO, 삼다수와 GO GO GO’
지난 3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공장 견학
생수 생산부터 자원순환까지 전 과정 생생 체험

<2> 시흥초등학교
“땅에서 물을 어떻게 가져와요?”
“땅에는 물이 얼마나 있어요?”

지난 3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서귀포시 시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주삼다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연신 쏟아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운영 중인 환경 체험 프로그램 ‘나누GO, 지키GO, 함께하GO, 삼다수와 GO GO GO’의 두 번째 일정이 이날 시흥초 4~6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먼저 삼다수영상관에서 짧은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홍보관으로 이동해 제주 수자원에 관한 다채로운 정보를 접했다. 이곳에는 전통 물 이용 방식부터 현대 지하수 개발 과정, 다양한 용천수 이름, 물 관련 속담, 삼다수의 탄생 배경, 화산암반수의 특성, 지하수 유입 구조, 제주 암석 등 제주 물의 역사와 특징이 전시돼 있

다. 학생들은 홍보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물 하나하나에 눈을 반짝였다.

관계자는 “삼다수는 한라산 해발 1450m 인근에서 스며든 빗물이 수십 년에 걸쳐 지하 420m까지 스며들며 형성된 화산암반수를 원수로 사용한다”며 “지하수가 천연 필터인 화산송이층을 통과하면서 정화돼 별도의 정수 과정 없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 취수원에서 얻은 지하수는 최소한의 공정과 살균과정을 거쳐 삼다수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스마트팩토리 견학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생수가 생산되는 전 과정을 지켜봤다. 유리창 너머로 병입, 밀봉, 라벨 부착, 포장, 운반까지 모두 무인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과정을 관찰한 학생들은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생산라인에 감탄을 쏟아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전용 운송 시스템을 통해 물



지난 3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공장을 찾은 시흥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빗물이 지하수가 되는 과정 등 제주 물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고 있다. 김채현기자

류센터로 이송하며, 이후 전국 각지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 주요 관광지와 재향용도움센터,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과 자동수거보상기를 통한 페트병 회수와 자원순환 구조도 함께 안내했다.

공장 견학을 마친 후에는 페플라 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자신만의 키링을 제작하며 자원 순환의 의미를 되새겼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내 곳자랄 숲길

을 따라 짧은 탐방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숲 생태와 지하수 함양의 원리에 대해 배웠다.

6학년 진운우 학생은 “지나해에도 공장 견학을 왔었는데, 이번엔 키링 만들기도 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훨씬 재미있었다”며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가연 학생은 “삼다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니 신기하고 흥미로웠다”며 “앞으로 생수를 마실 때마다 오늘 견학이 생각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수령 72년 한라산 ‘구상나무 대표목’ 공개

남벽분기점 돈내코 방면

해발 1600m 지점에 자생

제주도가 지난 5일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에서 유전체 연구와 종 보전의 기준이 될 대표목을 선정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구상나무 대표목’은 남벽분기점에서 돈내코 코스 방면 해발 1600m 지점에 자생하고 있으며 등산로에서 볼 수 있다. 수고는 6.5m, 밑동 둘레는 40cm, 나이는 72년 정도로 추정된다.

>>사진

이번 구상나무 대표목은 한국 특산종이자 기후 변화 연구의 지표종으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닌다. 도 세계유산본부는 구상나무 종 보전을 위한 표준유전체 지도 작성을 통해 국제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따른 생물주권과 유전다양성 보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크리 스마스트리 대표 이미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구상나무 대표목 유전체 활용을 위해 국립생태원, 충남대, 서울대와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 형질 개체를 선발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구상나



무 보전에 나선다.

고종석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구상나무 대표목 선정은 구상나무 보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고사와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구상나무 보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우리나라 가장 높은 샘’이라며 한라산 ‘백록샘’도 공개했다. 평소 접근이 제한되는 곳으로 도 세계유산본부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 2’ 프로그램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오는 24일까지 백록샘 탐방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남북부 7일째 열대야... 13~14일 비 예보

당분간 체감온도 35℃ 육박... 온열질환 주의 필요

제주도 남부와 북부에서 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계속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지속할 전망이다.

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북부) 25.8℃, 고산 26.4℃, 서귀포(남부) 26.7℃를 기록했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7일, 고산 4일, 성산 2일이다.

현재 제주도 동부에 폭염경보가,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

주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제주 동부 35℃ 내외)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노약자·임신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8일 아침최저기온은 24~26℃(평년 21~22℃), 낮최고기온은 31~32℃(평년 26~28℃)가 되겠다. 9일과 10일에는 구름많겠다. 중기예보상 오는 13~14일 비날씨가 예고돼 있다. 백금락기자 haru@ihalla.com

4개 마을서 ‘취덩굴 제거단’ 운영

도, 오는 9월까지 활동

하천 주변 등 정비 작업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4개 마을에서 ‘취덩굴 제거단’이 운영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취덩굴 제거단은 마을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남원읍 신흥2리, 애월읍 광령2리, 조천읍 북촌리, 성산읍 신산리가 그곳이다. 이들 마을에는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돼 장갑, 호미, 마대, 안전 장비, 약제 등 취덩굴 제거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쓰인다.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마을은 신흥2리로 이곳에서는 지난달 28일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신흥천 1.5km 구간에서 취덩굴 제거 작업을 벌였다. 다른 마을들도 순차적으로 활동에 나서 오는 9월까지 정비 작업을 이어간다.

앞서 제주도는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취덩굴이 급속히 확산되며 가로 경관은 물론 산림 생태계까지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취덩굴 제거 사업 총력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도민 참여형 제거단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도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제주 숲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선희기자

‘2025 제주어 시낭송·동화구연대회’ 개최

11일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한 ‘2025 제주어 시낭송 및 동화구연대회’가 오는 11일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4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도내 초·중학생들이 제주어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제주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제주어로 된 시와 동화를 낭송하거나 구연하며, 창작 작품뿐만 아니라 번역 작품이나 기존 발표 작품도 발표할 수 있다.

강정림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제주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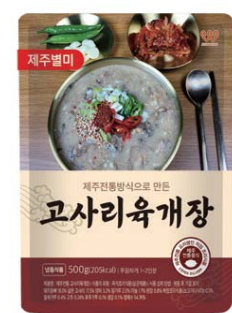
말하고 표현해보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어가 학교 교육과 일상 속에서 살아 있는 언어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한끼식,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가!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성계미역국, 제주몹국, 고사리육개장
골라담아 세트로 주문하면 일주일 식단 딱딱!



갈치조림 400g + 고등어조림 500g + 성계전복미역국 400g + 제주몹국 500g + 고사리육개장 500g
1팩 기준 보통 1~2인분으로 기본 5팩 주문할 경우 **최저 38,000원**부터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문의처 :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

● 제주전통 요리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 간편식(HMR)으로 조리없이 4~5분 그릇에 데워 먹는 가정 상비식품입니다. ● 냉동제품으로 택배 시 아이스박스에 입고하여 배달됩니다. ● 4개월 내내 우리 가족 건강식 + 1인 혼밥 식사대용으로도 좋습니다.